

“공정해야 정의” 스타들 특혜·갑질·불법 안돼!

특혜·병역·미약·성폭력 등 엄청난 재테크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바른 역할 요구
사형 청원 등 무자비한 비난은 문제

최근 가수 겸 연기자 수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오른 내용에 지지를 표했다. 소송에까지 휘말렸다. 유튜브 양에 일 씨가 한 사진스튜디오에서 촬영에 나섰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관련 내용이 국민청원됐다. 수지는 이에 대한 공개 동참을 표했다. 하지만 청원 속 문제의 장소로 지목된 스튜디오는 양 씨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스튜디오 측은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예계 안팎에서 국민청원은 다시 한 번 논란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공식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연예 관련 이슈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달아 등장해 왔다. 이는 연예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또 다른 시각을 엿게 한다.

●공정과 정의의 위해

‘공정’과 ‘정의’는 연예 관련 국민청원의 두 가지 키워드라 할 만하다.



국민청원에 관련해 피소된 수지(위)와 청원 대상이 된 정용화 박수진 이홍기(아랫줄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청원 내용은 오랫동안 연예계 병폐로 꼽히는 것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다. 지난해 출산한 연기자 박수진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다른 산모보다 자유롭게 이용했다거나, 정용화의 대학원 입학 및 군 입대 문제 등 많은 이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또 스타의 갑질 의혹이나 일부 연예인의 세금 체납 의혹, 연예계 부당한 임금 및 수입 체계 등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청원도 많다.

이는 연예인이 대중과는 다르게 더 나은 사회적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공정

한 사회’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약 소지나 흡입,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 등 연예인의 엇나간 행동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많다. 연예인은 TV 출연 등 미디어 노출을 통해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만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대중의 시선이기도 하다.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시선 안에서 연예인 역시 직업적 책임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인 셈이다.

●인신공격의 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기에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연예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특정 연예인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지나친 팬덤을 과시하는 등 국민청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최근 이광수가 SBS ‘런닝맨’에서 “너 꽃뱀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FTA 아일랜드 이홍기도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BJ의 방송을 본 것과 관련해 청원 대상이 됐다. 수지 역시 유튜브 성추행 고발 청원과 관련해 일부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연예인의 일부 발언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지적하는 내용이 국민청원으로 제기할 만한 사안인냐며 고개를 가웃한다. 단순히 스타를 향한 무자비한 비난과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해당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는 팬들이 합세해 청원금을 게시하고 추천하는 상황에 대한 의혹까지 일 만큼 국민청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이운택·장자연·단역배우 자매 사건 조사 탄력

정부가 답한 연예관련 청원은 3건

1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20만8510건의 청원이 올라 있다. 지난해 8월17일 문을 연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아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 내용은 34건. 연예 관련은 3건이 있다. 올해 2월17일 연극연출가 이운택의 성폭

력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이하 참여인원 20만8522명), 2월26일 고 장자연의 ‘한뎃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올린 청원(23만5796명) 그리고 3월3일 단역배우 자매의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청원(22만2770명)이다. 모두 ‘미투운동’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이운택 사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09년 기업인과 언론 고위 관계자들에게 술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8월4일 사건

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 자매가 방출관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했고 최근 가해자 가운데 일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 이후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다”면서 재조사 사실을 알렸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공룡이 낳은 기록들



4조 600억 흥행 주라기공원 ‘폴른 킹덤’ 일주일새 400만명

공룡의 마성에 관객이 빠져들고 있다. 감히 상상하기도 벅찬 시대에 살았던 미지의 존재를 향한 호기심이 영화 ‘주라기 월드:폴른 킹덤’을 통해 분출되면서, 6일 개봉한 영화는 일주일 만에 벌써 4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출발은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내놓은 ‘주라기 공원’이다. 상상 속 공룡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부활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돌풍을 만들었고, 지금껏 공룡영화의 최고 히트작으로 통한다.

올해는 ‘주라기 공원’ 탄생 25주년이다. ‘주라기 공원’은 2편과 3편으로 이어진 뒤 3부작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다 2015년 시리즈 리부팅을 통해 ‘주라기 월드’가 재탄생했다. 이번 ‘주라기 월드:폴른 킹덤’은 그 후속편이자, ‘주라기 공원’ 탄생 25주년 기념작이다. 때문에 원조를 향한 각종 오마주도 담겼다. 가령 티라노사우루스에 쫓기는 어린 남매가 탄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적힌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해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주라기 공원’ 1~3편과 ‘주라기 월드’ 1편까지, 네 편의 흥행 수익은 약 4조608억원(36억8829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높은 성적은 ‘주라기 공원’ 1편이다. 1993년 당시 약 1조1123억원(10억2915달러)의 수익을 기록, 전 세계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주라기 월드:폴른 킹덤’ 성적도 상당할 전망이다. 북미 개봉(22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국내서 개봉된 영화는 첫 날부터 오프닝 신기록(118만3524명)을 세웠다.

‘주라기 월드’는 이미 2021년 개봉을 목표로 3편 제작에 돌입했다. 인간 세상에 정착한 공룡이 사람과 어떻게 공존해 살아가는지 다룰 예정이다. 이해리 기자

편집 | 인도영·김창조 기자



연예현장.jpg

즐거움 전도사 ‘모모랜드’

걸그룹 모모랜드가 네 번째 미니앨범 ‘편두 더 월드’ 발표를 앞두고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공개된 사진에서 9명의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 특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다. 1월 ‘뽀뽀’를 히트시키면서 대세로 떠오른 모모랜드는 26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즐거움 전도사’로서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 | MLD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BTS, 3주 연속 빌보드 200·핫100 기염

방탄소년단이 3주 연속 미국 빌보드200과 빌보드 핫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빌보드에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는 빌보드200 14위,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빌보드 핫100 48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전작에 이어 2개 앨범 연속으로 3주간 빌보드 양대 차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페이크 러브’는 또 ‘메인 스트림 톱40 팝 송’ 차트에서 38위로 첫 진입했다. ‘메인스트림 톱40 팝 송’은 미국의 40개 라디오 방송사에서 일주일간 집계된 방송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강다니엘 팬들, 루게릭 재단에 200만원

워너원 강다니엘의 팬들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기금으로 승일희망재단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 강다니엘이 12일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자, 포털사이트 다음의 강다니엘 팬카페 ‘갓다니엘’ 회원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엑소 찬열의 지목을 받은 강다니엘은 12일 오후 워너원 SNS 계정을 통해 얼음물 샤워 영상과 200만 원 기부내역을 공개했다. 현재 연예계에서는 래퍼 선의 주도로,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2018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갓다니엘’ 회원들은 평소에도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오마이걸 반하나’ 8월 일본시장 데뷔

오마이걸의 첫 유닛 ‘오마이걸 반하나’가 8월 일본시장에 데뷔한다. 13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마이걸 반 하나는 8월28일 일본 데뷔 쇼케이스를 벌이며, 이튿날 데뷔음반 ‘바나나를 먹지 못하는 원숭이’를 발표한다. 이들의 데뷔음반은 미니 앨범 형태로 발매되며, 앞서 4월 국내서 발표한 팝업 음반 ‘바나나 알려지 원숭이’를 번안한 곡이다. 이례적으로 오마이걸은 유닛 앨범인 ‘오마이걸 반하나’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이후 완전체로 정식 데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걸은 일본 소니뮤직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영화감독 김기덕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을 고소한 김 감독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임했다. 배우와 스태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 몇몇 사람은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PD수첩’을 보면 증거보다 증언만으로 구성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방송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인지 규명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출산 후 폐렴 증세 추자현, 회복해 퇴원

출산 후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던 배우 추자현이 12일 퇴원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추자현이 12일 오후 1시경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면서 “1일 출산 후 일시적 경련 증세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경련 시 폐로 흘러들어가 분비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료진의 치료와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빠르게 회복해 퇴원했고, 향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자현은 현재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